

# 5

## 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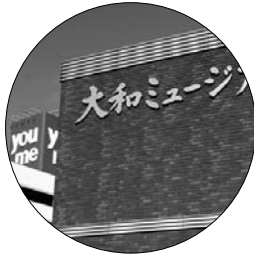
구레의 ‘해사 역사과학관’을 중심으로

정근식



■ (위) 구레항의 항공사진(1940년대)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야마토뮤지엄, 야마토뮤지엄의 홍보포스터, 야마토뮤지엄에 전시된 전함 야마토의 모형



## 1. 문제의 제기

2005년 봄 구레(呉)에 그로테스크한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구레시 해사(海事)역사과학관이다. 통칭 ‘야마토뮤지엄’이라고 칭하는데,<sup>1)</sup> 전함 야마토의 1/10모형과 구레 해군공창의 역사자료의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쟁을 떠받친 군사기술을 전시하고 있다. 여기는 1889년 구레 진수부(鎮水府)가 설치된 이래 해군의 도시, 침략전쟁의 거점으로서의 역사를 새겨야 한다는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박물관은 첫해에 100만을 넘는 시민들이 방문하였다. 공공롭게도 정부는 헌법을 변경하고 자위군을 갖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선 야마토뮤지엄이 만들어지는 경과에 관한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물으며, 문제점을 알아보자. …… 시민이 원하는 평

\* **지은이 |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현대 일본에 관한 연구로 『일본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경인문화사, 2001), 『일본산촌의 지역경제와 사회정책』(경인문화사, 2001), 『기지의 섬, 오키나와』(논형, 2008), 『경제의 섬, 오키나와』(논형, 2008) 등의 공저가 있다. 현재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제도사이드연구회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 글은 이현렌, 정영신과의 공동연구의 일부이다.

1) 일본 박물관법에 따르면, 국립박물관은 문부과학성 소속이지만, 도도부현의 박물관과 시정촌(市町村)의 박물관은 각 교육위원회가 관할하며, 시정촌은 ‘박물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야마토뮤지엄’은 구레시 산업부 관할이어서 ‘해사역사과학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별칭으로만 ‘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화의 역사를 새기기 위하여 구레시민으로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된다면 다행이다. (피스링크, 「제3회 구레시민평화강좌 안내문」, 2006년 12월)

이 글은 ‘피스링크 히로시마·구레·이와쿠니’(이하 피스링크)라는 주민평화모임이 2006년 12월, 제3회 구레시민평화강좌를 열면서 제시한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에 나타난 문제의식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기념관’, 또는 ‘공식적 이름과 비공식적 이름 사이의 긴장’이 시사하듯이,<sup>2)</sup> 오늘날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기억과 재현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구레는 히로시마 남쪽에 있는 소도시로 요코스카, 마이즈루, 사세보 등과 함께 전전 일본의 대표적인 군항도시이고, 이곳에 세워진 ‘해사역사과학관’(海事歴史科学館, 이하 야마토뮤지엄)은 1995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지역정치의 산물이었다.

그동안 히로시마는 1945년 8월의 피폭경험을 바탕으로 전후일본의 대표적인 ‘평화도시’로 자리잡았고, 세계의 ‘평화’운동의 한 기지로 기능해 왔다. 그렇지만, ‘유일 피폭국 담론’을 바탕으로 한 히로시마의 평화정치는 적어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과 인권침해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낯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sup>3)</sup>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평가 이외에 태평양전쟁 종전 60여 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전후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에 있는 듯하다. 일본의 중앙정치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보수주의뿐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관찰된다. 위에서 제시한 글도 폴뿌리 평화주의의 한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히로시마의 상징정치’와 지역사회의 전쟁기억을 둘러싼 동향을 보

2) 2009년 2월 2일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야마토뮤지엄의 설립주도자인 오가사와라 전 구레시장은, 이 역사과학관을 야마토뮤지엄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5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3) 권혁태는 1980년대부터 ‘유일 피폭국’ 연설이 일본의 국민적 기억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권혁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연설」, 『일본비평』 창간호, 서울대 일본연구소, 그린비, 2009.

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실험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은 일본지역연구에서 점적인 접근보다는 선적 접근 또는 면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검증하려고 할 때, 히로시마 내부의 지역정치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함께,<sup>4)</sup> 히로시마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전쟁기억이나 재현, 또는 군사기지를 둘러싼 평화운동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 글은 '히로시마만의 군사기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히로시마 주변의 소도시들, 즉, 구레나 이와쿠니 등에는 평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많은 군사기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1945년 이전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정치사회학적·문화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해진다.

여기에서는 구레의 '해사역사과학관'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히로시마와 구레의 연관' 하에서 분석하여, 일본 사회 저변의 집단기억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뮤지엄 건립을 주도한 오가사와라 전 시장과 이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 평화운동가들이 발간한 자료들을 검토하고,<sup>5)</sup> 시의회 회의록 분석과 함께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9년 2월과 8월에 이루어졌다.

## 2. 구레의 전쟁기억과 뮤지엄 설립의 역사적 배경

### 1) 전쟁경험

구레는 일본의 제국헌법이 발포되던 1889년, 해군진수부가 설치된 지역이다. 원래는 반농반어촌이었고, 해군 조병부와 병기부 등이 설치되면서 약 1천 호, 5천

4) Yoneyama, L., *Hiroshima Traces :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5) '大和'를語る会, 『シンポジウム「大和」におもう』1~7회, 1995~2003; 피스링크 広島・呉・岩国, 『呉市民平和講座』(피스링크叢書 14), 2008.

명의 주민들이 퇴거당하였다. 바로 그 전해인 1888년, 동경의 해군병학교가 인근 에다섬(江田島)으로 이전하였다. 1897년에 조병창이 들어섰고, 1903년에는 구레 해군공창이, 1923년에는 히로(広)해군공창이 설립되었으며, 1941년에는 제 11해군항공창이 들어섰다. 그래서 구레에 3개의 큰 공장지대가 위치하게 되었다. 해군공창에서는 아마토(大和), 나가토(長文) 등 전함을 비롯한 각종 군함 133척이 건조되었고, 전쟁말기엔 특공병기를 만들었다. 구레에서의 특공병기 제작은 1940년 특수잠항정 ‘고효데키’(甲標的)를 시작으로 점차 소형화된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어뢰 ‘가이텐’(回天)을 제작하였다. ‘갑표적’은 진주만 공격에 참가하였다. 구레는 ‘회천’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는 거점으로 420기가 모두 구레 주변에서 제작되었다.

구레의 전쟁기억은 크게 볼 때 해군공창에서 생산한 다수의 해군함정, 특히 1941년에 만들어진 아마토함에 대한 기억과 전쟁 말기의 무시무시한 공급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함 아마토는 중일전쟁이 개시된 1937년에 기공되어 1940년 8월 8일에 진수식을 가졌고, 1941년 12월 16일에 완성된 일본해군 최대의 전함이었다. 아마토함은 7만 2천 800톤의 거함으로, 구레 진수부에 적을 두고 일본해군의 연합함대의 기함으로 활동하였는데, 전쟁 말기인 1945년 4월 7일, 미군과의 전투가 한창이던 오키나와로 향하다가 도쿠시마 서해에서 미군 비행기들의 폭격을 받아 침몰하였다.<sup>6)</sup> 3,332명의 승무원이 이에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결국 3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만 살아남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마토함의 비극은 전쟁기의 정보통제와 군사검열에 의해 통제되었고, 전후 미군정하에서도 언론통제로 별로 언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마쓰모토 레이지(松本零士)

6) 1945년 4월 6일 일본의 육해군 항공부대는 오키나와의 절망적 전세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하여 ‘기쿠스이(菊水)1호작전’이라는 이름으로 400기의 비행기를 집결시켜 오키나와 주변의 미군 함정들에 대하여 특공공격을 했고, 아마토함도 이에 호응하여 4월 7일 ‘天—무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상특공을 위해 출격하였으나 미군 제58 기동부대에 포착되어 전투기와 폭격기 386기의 8차례 걸친 공격을 받았다.

의 만화영화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에둘러 가는 은유를 통해 대중화되었으며,<sup>7)</sup> 2005년 박물관 건립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현 또는 기억의 정치를 통하여 지역사회로 생환하게 되었다.

평화운동진영에서 바라보는 구레의 100년은 군항으로서의 성립, 특공병기의 생산거점화, 식민지시기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 1945년의 공습피해, 1954년 해상자위대 기지화, 기능의 지속성 등으로 요약된다.<sup>8)</sup> 구레의 주요 시설에 조선인 노동력이 동원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해군감옥건설부터였다. 1934년 기차터널공사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터널붕괴로 생매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말기의 도로공사, 방공호 파기, 탄광 노동에 다수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으며 에다섬이나 구라하시(倉橋)의 해군연료탱크건설에도 동원되었다.<sup>9)</sup>

구레는 해군진수부가 설치된 이래 중요한 군항으로 발전하였으므로,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5년 전반기에 미군에 의해 집중적으로 폭격대상이 되었다. 일본 해군은 이런 공습에 대비하여 1944년부터 고사포를 다수 설치하였지만, 미군의 공습을 막지 못했다. 구레에 대한 제1차 공습은 1945년 3월 19일 미군 함재기 약 350대에 의해 구레군항, 구레와 히로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때 전함 야마토가 함포사격으로 반격하였으므로, 이를 ‘구레군항 해공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 5월 5일, 6월 22일, 7월 1~2 일에는 미군의 B29 폭격기에 의한 대대적인 폭격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공습은 히로 해군공창과 제11해군공창, 그리고 구레공창 조병부가 폭격대상이었다. 6월

7) 최근에 이루어진 한정선의 만화영화 「우주전함 야마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만화영화는 과거의 야마토함에 대한 '기념비적 역사쓰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1970년대의 일본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욕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한정선, 「전후 일본의 기념비적 기억—만화영화 「우주전함 야마토」와 1970년대 전후세대」, 『사회와 역사』 83호, 2009. 9.

8) 久保正和, 『呉の近現代史100年』, 吳市民平和講座 제4회, 2007. 2.

9) 구레와 한국인의 관계를 언급할 때, 우범선-우장춘 부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장춘이 구레중학 출신이다. 그의 부친인 우범선이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개입되어 일본으로 피신하였는데, 1903년 암살되어 구레의 한 집에 묻혔다. 그의 묘비가 남아 있는데, 친일파의 거두였던 조희연이 묘비명을 썼다.

22일의 공습에서 여자정신대와 동원학생들 476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을 기리는 '순국의 탑'이 1965년에 건립되었다.

7월 1일 자정 무렵부터 2일 새벽 사이의 공습은 구레 역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전쟁경험으로, 구레 시가지를 대상으로 소이탄 1,081톤, 약 8만 발 (또는 16만 발)을 투하하여 시민 1,817명이 죽고, 전소가옥이 2만 2천여 호, 피해자가 약 1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중학교 2년생 이상은 공창에 동원된 시기였는데, 이 공습은 단위 면적당 투하폭탄 수가 세계최대라고도 표현될 정도로 압도적인 것이었으므로, 후일의 전쟁기억에서 전쟁의 참혹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sup>10)</sup> 이 공습에서는 소이탄으로 인한 가스와 화재로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질식사하고 대규모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때의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규모의 공양탑과 지장보살이 구레시 혼마치에 1950년과 1963년에 세워졌다.

7월 24일과 28일에 이루어진 공습은 각각 제1차 구레 해공전, 제2차 해공전으로 불리는 것으로, 구레 군항에 정박해 있던 군함들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때 남아 있던 일본해군의 전력의 거의 궤멸되었다. 지역의 평화운동가들은 7월 24일의 공습과 응전을 통해 구레가 '전장'이 되었고, 7월 28일의 공습을 통해 일본해군의 '무덤'(墓場)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sup>11)</sup>

## 2) 전후의 전환 또는 재군사화

일본 패전 후 1945년 10월 미군이 구레와 히로 지구에 약 8천 명씩 배치되었다. 그 후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혼성군인 영연방 점령군이 군사적 치안을 담당하게 되어 1946년 2월에 상륙하였다. 전시기의 전성 시기에 40만 명을 넘었

10) 斎藤久仁子, 「吳空襲—無差別爆撃の実態」, 吳市民平和講座 제1회, 2006. 7.

11) 『ピースリンク叢書』 14, 2008. 82쪽.

던 구레시의 인구는 15만 명으로 격감하였다. 구레시의 부흥은 구군대시설의 활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1946년 4월부터 GHQ의 지시에 의해서 하리마(播磨)조선소가 구레해군공창의 조선·조기부 옛터를 이용해 침몰 함정의 인양, 군함 해체 작업 등을 하였고, 또 아마가사키(尼崎)제철 구레작업소가 제강부 옛터에 진출하여, 폐물의 주강(鑄鋼)작업을 하였다. 히로의 구 제11해군 항공창에가와미나미(川南)공업 히로제작소가 개소하고, 히로시마 철도국 공기부(工機部) 히로분공장이 진출했다.

해군이 없어진 후의 미래상을 평화적인 항만산업도시의 건설로 정한 구레시는 구해군 공작청시설의 평화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1948년 구레항을 개항장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구레시는 요코스카, 사세보, 마이즈루와 협력하여 구군항 시(市)전환촉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여론을 설득하여 구군항시전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군항시전환법(약칭 군전법)은 1950년 4월, 참의원에서 가결된 것으로, 이 4개의 군항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법률은 전쟁의 유산인 구해군의 재산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전용하여 평화로운 도시만들기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았다. 군전법 전환시 1950년 주민투표에서 구레는 87.99% 투표에, 92.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2)</sup> 이 법에 의하여 구레의 해군공창 제강부는 민간제철소로, 조선부는 민간조선소로 이관되는 등 구레의 군사시설 및 부지가 민간소유로 변화했다.

군전법은 1949년 제정된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sup>13)</sup> 이후 ‘평화도시’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이 전후 구레시의 출발이

12) 사세보는 참여율 90%, 찬성률 97%였다고 한다.

13) 히로시마의 경우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나가사키는 나가사키국제문화도시건설법이 1949년 8월 9일 법률 제220호(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로 최종 개정)로서 별도로 공포되었다.



〈표 1〉 평화기념도시건설법과 구군항시전환법의 비교

	히로시마평화기념도시건설법	구군항시전환법
배경	최초의 원폭투하 도시 구 일본군 시설의 완전한 파괴	6차례에 걸친 미군의 대규모 공습 구 일본군 시설의 부분적 파괴
대상도시	히로시마시	구레, 요코스카, 사세보, 마이즈루
제조(목적)	항구 평화를 성실하게 실현하자는 이상의 상징으로서 히로시마시를 평화기념도시로 건설	구 군항시를 평화산업항만도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화일본 실현의 이상 달성에 기여
주민투표	1949년 7월 7일	1950년 6월 4일
법안 공포·실시	1949년 8월 6일, 법률 제219호로 성립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로 최종 개정)	1950년 6월 28일 법률 제220호로 성립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로 최종 개정)
특징	최초의 주민투표 현재까지 히로시마 도시발전계획의 기본을 이루고 있음	남아 있던 구 해군의 토지, 공장, 기계, 고철(합선) 등을 처리하는 경제적 배분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함

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후의 구레가 ‘평화도시’라는 얼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4년, 방위청 설치와 함께 육해공 자위대가 발족하였을 때, 구레에는 해상자위대 구레지방총감부와 구레 지방대가 설치되었다. 당시 함정이 40여 척, 배수량 9천 톤, 대원 1,200명이었다. 구레는 해상자위대의 기지가 설치 되면서 군사도시 또는 군항도시로서의 속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시정목표의 하나가 ‘자위대와의 공존 공영’이 되었다.

구레의 해상자위대 시설은 구레지구와 에다섬지구로 구분된다. 구레지구에는 구레지방총감부, 제1잠수대, 제4호위대, 제1수송대, 제1소해대, 제10소해대, 연습함대, 구레교육대 등이, 에다섬지구에는 간부후보생학교, 제1술과학교, 특별 경비대 등이 있다. 또한 각종 탄약고, 저유소, 정비소 등이 있다. 또한 미군기지로 히로탄약고, 아키스키탄약창사령부, 아키스키탄약고 등이 있다. 좀더 범위를 넓힌다면, 구레뿐 아니라 이와쿠니에 미군 해병대 이와쿠니항공단이 주둔하고 있어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미군기지와 자위대 기지가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sup>14)</sup>

1980년대 중반부터 해상자위대의 설비가 확충되었고, 1998년에 함선의 대형화가 진행되었다. 2001년 11월, 미국의 영향으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성립하여 해상자위대가 아라비아해에 함선을 파견하였다. 일본해상자위대의 소해부대의 주력이 구레에 있고, 잠수함도 60% 이상이 구레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수송함이나 음향측정함도 배치되어 있다.<sup>15)</sup> 2006년의 경우 구레 기지의 함정은 잠수함, 소해정 등을 포함하여 43척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배수량 15만톤 이상, 대원 1만 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구레의 현대사를 바라본다면, 군전법 제정과 한국전쟁에 따른 영연방한국과견군(국제연합군)의 주둔으로 일시적인 호황을 겪었다.<sup>16)</sup> 그러나 1953년 한국전쟁의 종료, 1956년 영연방군 철수 등에 따라 대규모 실업자가 생겨나면서, 구레시는 '제2의 종전처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비상상태로 몰렸다. 재정적자도 격심했다. 1960년대부터 비로소 구레는 일본의 고도성장의 흐름속에서 제강업과 조선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전후 부흥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 1963년부터 5년간에 걸쳐 재정재건법(財政再建法)의 준용을 받아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게 되었다. 1960년에 21만 명이었던 인구는 1974년에 2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73년에 발생한 석유위기와 그 후의 엔고는, 수출에 의존한 중화학공업에 큰 타격을 주고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구레시의 경제는 다년간 침체에 빠졌다. 일본 조선산업은 1950~1980년대에 세계최대, 최고 수준에 올랐는데 이후 한국조선업과의 경쟁상황에 놓이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5년에 「구레시 장기 기본 4구상」을 작성하고, 전후 구레시의 기

14) 平賀伸一, 「吳の軍事基地について」, 吳市民平和講座 제2회, 2006. 9. 17쪽.

15) 久保正和, 「吳の近現代史100年」, 吳市民平和講座 제4회, 2007. 2. 45~47쪽.

16) 2009년 2월 2일, 구레시 산업과 고마쓰(小松) 과장과의 대화에서 한국전쟁이 구레시의 부흥에 미친 영향에 관해 질문했을 때 그는 답하기를 어려워했다. 구레경제사에서 오일쇼크는 강조되는 반면, 한국조선업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있지 않았다.

본정적인 평화산업항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히로시마 중앙테크노폴리스와 구레 마리노폴리스를 2대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구레의 현대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전후 일본사회 및 구레의 지역경제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구레가 가진 각종 기술이 이의 기반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구레의 군항도시로서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야마토함을 건조한 도크 바로 옆에 해상자위대 함정의 보수를 위한 도크가 들어서 있다. 야마토무지엄의 개관 이후 방문객들은 야마토를 건조한 도크나 잠수함이 보이는 해상자위대의 잔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다. 그래서 일부 평화운동가들은 구레가 과거나 지금이나 군대에 기생하여 살아간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구레의 역사적 유산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 즉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입장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입장 간의 긴장 사이에서 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신자유주의적 환경이 1990년대에 점차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된다.

### 3. 해사역사과학관의 설립과 운영

#### 1) 구상의 구체화

구레의 ‘역사가 보이는 언덕’에는 야마토함 기념비가 서 있는데, 이 기념비에는 ‘전함 야마토를 추모하는 탑’(憶戰艦大和之塔)이라고 새겨져 있고, ‘구레야마토회’(呉大和会)가 ‘야마토 진수 30주년’ 기념일인 1969년 8월 8일에 세웠으며, 구레시장 오쿠하라(奥原義人)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 이 기념비 바로 옆에는 1980년대에 과거의 공장현판들을 모아 만든 탑이 서 있다. 우리는 이 비들을 통해, 구레에서 야마토함에 대한 기억이 1960년대 후반부터 재현되어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이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구레에서 배에 관련된 지역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최초의 구상은 198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구레에 해사(海事)박물관 설립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존재하였다. 박물관 설립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와 이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주로 시사편찬실에서 제공하였지만, 조사작업에는 상공회의소 성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오가사와라 전 시장 및 히로시마 국제대학 지다(千田武志)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구상의 구체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레시에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 전국의 ‘해사박물관’을 조사하면서 조선관계자료를 수집하였다. 1994년에는 박물관자료수집위원회를 설치하고 “홀어져 없어질 위기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1995년에는 1991년에 책정된 기본구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해사박물관 설치구상’을 하였다. 건설장소나 규모에 관해서는 “시민이나 전국의 구해군관계자들 중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고, 자위대 OB조직은 자료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본 최대일 뿐 아니라 세계에 과시할 만한 규모”를 요구하였다. 구레시는 귀중한 자료를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다든가, 어린이들에게 구레의 역사를 심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또 후쿠이박물관에 군사관계자료가 많으므로 이를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홀어질 위험이 있는 과거의 조선기술에 관한 자료”를 시급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4년 박물관자료수집위원회 설치부터 1995년 6월의 ‘해사박물관 설립구상’ 사이의 기간에는 여전히 히로시마현에 현립으로 박물관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현은 해사박물관으로 건립할 경우 다른 지역 박물관들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전시 내용도 모호하고, 자금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때문에 구레의 박물관 설립안은 점차 구레시 주도의 아마토뮤지엄 건립 구상으로 전환되어 갔다. 박물관 설립을 위한 예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회당은 이 계획에 찬성하였으나, 공산당은 시 재정부족을 들어 반대하였다. 박물관 설립주도세력은 자위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

1995년 9월의 시 의회에서 반대파의원들은 “예정된 해양박물관에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사상을 끌어들이 수 있는가, 평화를 새기는 기념관이나 자료관이 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다. 1995년 12월, 전후 50주년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레시 박물관 구상안이 제출되었다. ‘역사의 반성과 평화의 창조로써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상징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어 1996년에 구레시는 해사박물관 추진실을 설치하고 배에 관한 자료들을 모은 ‘수장전시실’을 열었다.

1996년 6월, 전함 아마토의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전함 아마토를 중심으로 한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면서, ‘구레의 역사에서 최대 규모인 것, 구레가 과시할 만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부상한 것이다.<sup>17)</sup>

아마토뮤지엄의 구체적인 설립경위에 관해서는 이 박물관 설립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오가사와라 전 구레 시장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1993년 구레 시장에 당선되어 3회 연임하면서 2005년까지 재임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박물관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시장에서 퇴임한 후 박물관 설립과정에 관한 책을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그가 쓴 『전함 ‘아마토’의 박물관—아마토뮤지엄 탄생의 전 기록』은 일본에서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 줄 뿐 아니라 이 박물관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분석할 만한 좋은 연구자료가 된다.<sup>18)</sup>

아마토뮤지엄의 건립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다. 1993년 구레시장에 당선된 오가사와라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지식인층, 교육위원회 등을 결집시켜 박물관 건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구레시 시사(市史) 편찬실에 근무하고 있던 지다에게 자료수집과 박물관

17) 久保正和, 『呉の近現代史100年』, 29쪽.

관의 개념정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는 1971년부터 방위연구소에서 해군사를 연구하고 1978년부터 13년간 구레시의 역사를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레의 정체성을 '기술'로 규정했다. 즉, 구레는 '해군의 마을'이라기보다는 '장인(공인)의 마을'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쟁기념관을 모델로 하여, 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사와 그들의 기술력, 대포와 선박제조기술을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전시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는 1995년부터 시작된 '아마토에 묻는다'라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sup>19)</sup> IHI조선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가사와라 시장은 초기에 지다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점차 해군공창이나 기술보다는 전함 아마토를 중심으로 한 기획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오가사와라 시장은 기존 박물관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진 박물관이어야 하며,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해군사나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계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물관 건립이 가져올 사회교육적 효과를 중시했다. 결국 그는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기술중심주의노선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자신의 시장 임기 제3기(2001. 11~2005. 11)에는 이를 배제하였다.<sup>20)</sup>

18) 오가사와라 시장의 책은 제1장에서 구레를 '아마토'의 고향으로 규정하고, 구레시의 역사와 해군과의 관계, 전함 아마토의 건조와 '운명', 그리고 전후 '조선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2장은 구레에 독특한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초기의 구상을 밝히고 그것을 '근대 조선기술'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밝혔다. 3장과 4장은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밝혔다. 여기에는 일본의 해군 및 함정자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연방의 자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광범하고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장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지역여론 형성과정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9회에 걸친 심포지엄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였다. 아마토뮤지엄은 원래 구레시가 히로시마현에 요청하여 일종의 현립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구레시의 장기기본구상에 포함시켜, 시 주체의 박물관 건설로 전환했다. 이 내용은 6장에 기술되어 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구체적인 박물관 설립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설립취지의 설명과 나카소네 전 총리의 관여와 시의회의 논의, 그리고 전함 아마토의 모형제작과정, 그리고 잠수함 전시과정 등이 기술되었다. 10장은 구레의 박물관 설립과정에 따라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배의 선체를 조사하고, 전시회가 열리는 등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11장은 박물관 건축공사과정을 다루고 있다. 12장은 박물관 개관 후의 반응과 남은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19) '大和を語る会, 『シンポジウム「大和」におもう』 1~7회, 1995~2003. (이하 '심포지엄 자료집')

20) 그는 이 무렵 구레 시사편찬위원회를 사직하고 히로시마 국제대학 교수직으로 옮겼다.

구레시를 중심으로 박물관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박물관의 기본개념을 둘러싸고 평화운동 내부에서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5년, 구레 전재(戰災)를 기록하는 모임, 역사교육자협의회, 일교조평화교육추진부, 비핵의 구레향을 추구하는 모임, 그리고 피스링크 등은 구레 전재전 실행위원회(呉戰災展實行委員會)를 구성하여 구레 전재 5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는 동시에, 구레시에 전재를 중심으로 한 전재기념관 건설을 요청하였다.<sup>21)</sup> 그러나 이들의 기획은 보수적인 정치권으로부터 무시당했고, 당시 신노선을 둘러싼 분열과 합종연횡에 골몰하던 사회당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한 결과, 박물관 건설의 주류적 흐름에서 주변화되었다. 이런 현상이 시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1993년부터 오늘날까지 사민당 출신으로 구레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노 요시코는 이를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였다.<sup>22)</sup>

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박물관 설립의 주류파는 “구레시의 상징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이 해상자위대와 대일본제국해군의 역사이다. 박물관은 전쟁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해군의 역사를 크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대 구레시의 재생의 기념관 설립의 의의는 구레의 역사·문화·산업기술의 추적 등을 수행하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사업으로, 역사가 보이는 관광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서는 전함 아마토나 군사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조선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1996년 12월, 의원들 사이에서 박물관 설립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었으며, 현의 입장에서는 재정곤란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시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시에서도 ‘현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지원받지만, 지

21) 이 전시회의 제목은 「그로부터 반세기, 구레의 전재(戰災)를 반복하지 말라」였다. 이들은 “구레가 다른 도시보다 심한 공습피해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히로시마나 후쿠야마 등지에는 있는 평화·전재기념관이 구레시에서는 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피해의 실태가 어땠는가, 희생자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는 전후의 처리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것을 끝내지 않는 한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2) 大野よし子, 「海事歴史科学館と平和, 呉市民平和講座」 제3회, 2006. 12.

금부터는 구레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단 하나의 박물관’을 만들 장소로 구레 무로마치의 매립지가 최적지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반대파의원들은 구레시의 이미지와 군전법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했으나 군전법을 활용하여 국유재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답을 하였다. 다른 반대파의원은 ‘아마토를 정점으로 하는 조선기술이란 조선기술이라기보다는 군사기술이며 그 상징도 군함의 이미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1997년 3월, 구체적인 ‘구레시 해사박물관 기본계획’이 책정되었고, 이로부터 ‘실시계획’, ‘전시계획’ 등이 계속 추진되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였다. 이 때문에 ‘기금조례’의 제정이 논의되었다. 당시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자료가 8만 점이 수집되었으나 박물관건립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아마토에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마토를 말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심포지엄 ‘아마토를 생각함’에서 “전후교육도 전전이나 전쟁 중의 일을 봉인하여 직시하지 않았다. 진정한 평화주의를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가운데 “방위청자료를 박물관에 가져와야 한다”든가, “구레는 해군에 의해 영욕을 겪었고, 해군의 기술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므로 그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 평화교육의 장소에서 실물의 병기를 전시하고 관람자가 전쟁 속에서 평화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박물관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레시의회의 논의를 분석해 보면, 동일한 언어 속에서 평화를 포착하는 방법과 군전법을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가 추진파와 반대파 사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주도권은 시와 추진파가 갖고 있고, 반대파가 지속적으로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시에서는 “구레는 해군공창과 함께 걸어왔다. 전후 그 기술이 평화산업을 일으켰지만, 역사의 전시가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이 되는”, “군전법에서 평화산업으로”라는 표현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답을 하였다. 반대파에서는 국가재정이 파탄상태여서 정부나 현이 지원을 할 수 없고, 시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추진파는 지속적으로 야마토 담론을 생산하면서 야마토를 어떻게 박물관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질문했다. 시는 “야마토를 위한 박물관은 아니다”는 답변을 하였다.

‘야마토를 말하는 모임’은 “구레시가 전국에 과시할 수 있는 것은 야마토의 역사, 구해군의 역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는 전쟁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의 오직 하나뿐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지역사가 지역 정체성 형성의 기초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8년 3월에 ‘구레시 해사박물관 전시계획’이 만들어졌다. 이때 처음으로 시가 방위청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반대파의원들은 대형 건물을 지을 경우 재정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1998년 6월에 전시계획에서 잠수함을 육지에 끌어올려 전시하는 발상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사업비가 80억 엔으로 계상되었다. 이후 이 사업비는 70억, 나중에는 65억으로 감소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시의회에서의 논의를 보면 추진파와 반대파 모두 똑같이 군전법과 평화산업항만도시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마토뮤지엄의 역사관을 ‘전쟁찬미’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일본의 역사이므로 그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 세 개의 서로 다른 기획들이 형성되어 경쟁하였고, 결국 시장 주도의 야마토함 중심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획들을 비교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2000년에 이르러 건축 및 전시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2002년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4월 해사자료관이 개관하였다. 박물관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평화운동단체들은 ‘백지철회를 요구하는 요청서’, ‘공개질의

〈표 2〉 박물관 구상의 경쟁적 기획들

	工廠 중심 기획	야마토 중심 기획	戰災 중심 기획
주도세력	지다교수 일부 관료	오가사와라 전 시장, IHI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평화운동(피스링크) 구레전재전실행위원회
전전 구레	장인의 마을	야마토의 고향, 조선산업 중 심지	군도(일본의 침략거점)
전시 내용	공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생 활과 기술	야마토로 상징되는 구레의 조선기술	시민들의 전시생활과 피해
핵심 개념	해군공장, 기술	조선, 야마토	전쟁, 평화
특징	"전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사실주의적 시각을 강조함. 그것이 전쟁 의 비참함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고 봄	전후 야마토의 이야기가 억 압·터부시되었다고 보고 "야마토를 생산한 구레의 공지를 되살려야 한다"며 사회교육 목적의 도구주의 적 접근을 취함	15년 전쟁 기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전 재의 실태를 상세히 규명, 구레의 현재를 군사기지와 의 공존을 통해 설명

서'등을 제출했고, 시민당 등도 반대의견을 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  
신의 구상을 계속 추진하였다.

## 2) 야마토에 관한 상상력의 동원

구레의 전쟁기억은 두 가지 원천을 갖는다. 하나는 1945년 4월에 침몰한 전함 야  
마토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간에 겪은 대규모 공습경험이다. 두 가지 기억  
은 전후의 부흥을 거치면서 서로 분리되어 하나는 지역사회의 기술이라는 것을  
매개로 우파적 자긍심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다른 하나는 전쟁의 공포를 매개로  
평화주의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사실 전전 야마토함에 관한 정보들은 일종의 군사비밀이어서 당시의 일본인  
들이 잘 몰랐다고 한다. 미군정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에서 야마토함 담  
론은 전후 창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주간만화』를 통해 『제로센 야마  
토』를 일본 국민들이 읽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일본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전전  
의 일본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가장 성능이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 냈다거나,<sup>23)</sup> 세계 최대규모의 배를 제작했고, 또 이것이 피격 침몰했다는 ‘비극적 텍스트’가 만들어졌다. 점차 일본의 전쟁담론은 비행기는 ‘제로센’, 배는 ‘아마토함’으로 집약되었다. 이런 대중적 담론은 기술중심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비인간성-패전책임은 상부로 전가하고, 대중적으로는 비극적 스토리만을 취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호세이대학의 다나가 유코(田中優子) 교수는 아마토의 정서가 어필하는 이유를 ‘비극성’에서 찾았다. 이와 함께 아마토에 대한 상상력은 마쓰모토의 「우주전함 아마토」라는 만화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24)</sup>

그러나 1970년대의 아마토 담론은 구레라는 지역성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렵다. 구레라는 장소성과 군사적 강함을 상징하는 아마토함 담론이 결합되면서 가시적 구체성을 갖춘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의 구레의 적극적 문화정치를 통해서였다. 일본인들은 아마토함을 전전 일본 해군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구레시는 이런 일본인들의 상상력을 그것을 생산한 ‘고향’으로 환원시켜 박물관 건립에 활용하였다.

구레에서 아마토 담론이 지역정체성과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확산된 것은 1995년 10월 구레시의 전후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이 중요한 계기였다. 1995년은 일본에게는 태평양전쟁 패배 50주년이었다. 이 패전은 이후 ‘종전’으로 기억되었고, 이 해에 일본에서는 전후50주년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구레시도 전후 50주년 사업으로 15개의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5회 ‘붉은 기와 네트워크’ 구레 총회였다. 이 회의는 구레의 ‘구레 렌가(연와)건조물 연구회’라는 모임과 전국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진행한 것으로, 이 건조물연구회 회원들은 오노키(大之木英雄)를 중심으로, 아사히신문사 구레지국장 와타나베(渡邊圭司)와 상의하여 회의의 주제를 아마토에 관

23) 이 비행기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철갑을 약하게 설계하여 조종사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전에서 쉽게 희생되었다고 한다.

24) 만화를 통해 창출된 아마토 이미지가 박물관 설립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 시장과 실무과장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였다.

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는 1995년 10월 21일, 구레시 문화홀에서 80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 ‘야마토를 생각함—렌가가 있는 풍경-구레에서’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 야마토함의 건조는 가장 체계화된 구레 공창(工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야마토함의 승무원 대부분은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신생 일본’의 기초가 되었고, 야마토함은 사라졌어도, 그것을 만든 직원들의 기술은 영원히 살아남았으며, 야마토는 진혼으로서의 이야기로 남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자였던 하야사카(早坂暁)는 시나리오 및 방송작가로 「보카상의 엄마」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것이 야마토함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강연회에서 야마토함의 침몰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침몰하기 전의 비장한 상황을 병사들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야마토함은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지 3시간 후 도쿠야마(徳山)에서 출항하여 분고(豊後) 수도(水道)를 따라 천천히 오키나와를 향해 나아갔는데, 이를 미국의 잠수함이 추적하여 이튿날 오후 수많은 비행기가 공격하여 침몰하였다. 그는 야마토함을 주포의 구경 46센티미터, 사거리 4만 미터의 세계 최대의 대포를 장착한 “최대최강의 전함”으로 표현하였다.<sup>25)</sup> 그는 “근대 공업국가란 전함을 만드는 나라”로 정의하고, 전함은 근대국가가 가진 공업력을 총결집하여 만든 것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 야마토함이라고 말했다. 야마토함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파나마운하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며, 건조비용은 주로 생사수출대금으로 충당되어 결국 여공들의 희생 위에서 건조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야마토함은 당시 일본이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켜 만든 조형물이자 군함이었다. 야마토함은 일점 집중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쟁을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대규모 조형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25) 『심포지엄 자료집』, 5쪽.

문화전통에서의 삼층탑이나 오층탑 형식의 성과 같이 메이지 이래의 최대 최고의 건조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토함을 일본의 공업력과 문화력이 결합된 것, 일종의 종합적(오케스트라적) 창조물로 보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아마토함이 일본인의 마음과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했다.<sup>26)</sup> 일본은 국력이 없으므로 지구전은 제대로 할 수 없고, 항상 기습전을 수행해 왔으며, 아마토함은 이를 나타내는 ‘슬픈 기념비’라는 것이다.

최초의 심포지엄은 이 심포지엄을 실질적으로 조직한 실무책임자인 지다(千田武志)가 패널 진행자였는데, 그는 구레 렌가(연와)건조물연구회 회원이자 구레 시사편찬실 주간이었다. 이 패널에는 아마토함의 설계에 참여한 니시하타(西畑作太郎)가 참여하여 아마토함 이전의 군함과 아마토함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마토함의 건조계획과 실제 건조과정, 출동 모두 극비사항으로, 조기, 대포, 통신 분야의 기술이 결집된 것으로, 그 특징을 선체의 높이가 높고, 구형 선수(球形 船首), 굴뚝 한 개라고 보았다. 특히 구형 선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기술이 전후의 일본 선박기술에 채택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아마토함에 표현된 기술력이 살아남아 전후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담론이 뚜렷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호세이대학 교수인 다나카는 이 토론에서 아마토함의 특징을 ‘이야기와 기술’로 집약하였다.<sup>27)</sup> 여기에서 이야기란 진혼(鎮魂)에 관한 것이었으며, 기술론은 현재의 일본이 겪고 있는 ‘기술 공동화 위험론’이었다. 이 심포지엄의 후원자는 구레시의 그린라이언즈클럽, 블루라이언즈클럽, 우루메라이언즈클럽, 포토라이언즈클럽, 로터리클럽, 청년회의소, 사담회(史談會), 문화진흥재단, 교육위원회 등이었다.

26) 같은 책, 6쪽.

27) 같은 책, 10~12쪽.

이후 야마토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원래 1995년의 심포지엄 조직자들은 이를 일회성 행사로 생각했으나, 이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시민들로부터 이를 지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sup>28)</sup> 구레시장 및 심포지엄 조직자들은 야마토 심포지엄을 지속하기로 하고, ‘야마토를 말하는 모임’을 1997년 1월에 조직하고, 제2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후 2002년까지 총 7회의 심포지엄을 열었고, 2003년에는 『심포지엄 야마토를 생각함』(大和におもう)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총 7회의 심포지엄 발표문과 토론 내용이 실려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 보면, 구레에서 야마토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주민들에게 소비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심포지엄 자료집은 구레시가 ‘야마토를 말하는 모임’을 통하여 야마토함을 구레의 역사적 상징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 모임의 성원들은 “구레는 야마토를 건조하고, 모항으로서 송영을 한 고향이다”라고 썼다. 이들은, 야마토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야마토함은 “전전의 일본해군의 기술을 결집하여 건조했던, 지금까지도 세계 제1의 규모로 기록되어 있는 거함으로, 이것이 사라진 지 50년이 지날 때까지 여전히 화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르면, 야마토는 단순한 병기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여 일본인의 심정이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상징으로, 1945년의 야마토의 침몰은 전전이 끝나고 전후가 시작되는 계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야마토와 함께 일본인을 무엇을 잃고, 또는 의식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전후를 걸어 왔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임의 발기인들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을 구하기 위해 이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1997년 1월 17일 약 100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고, 회장으로 오노키(大之本英雄)를 선출하였다. 이 모임은 제2회 심포지엄을 1997년 2월 14일 개최하였다.

28) 『심포지엄 자료집』에서는 ‘올해의 심포지엄은 언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색도했다고 표현했다. 284쪽.

제2회 심포지엄부터 ‘아마토를 말하는 모임’가 주최를 하면서, 이 모임의 회장인 오노키는 요시다(吉田滿)의 저서 『전함 아마토의 최후』(戦艦大和の最期)를 자주 인용하면서 아마토함의 침몰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는 아마토 승무원들의 “사투하는 모습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응시”하고 또한 이 “최후까지 책임을 다한 숭고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일본을 미증유의 정체와 폐색감”이 지배하는 사회”로 규정하는 어법을 구사하여, 아마토의 경험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sup>29)</sup> 심지어 ‘아마토 정신’(大和魂)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sup>30)</sup> 공동주최자로서 오가사와라 구레 시장은 구레를 ‘아마토’의 고향으로 규정하였다.

원래 이들은 유명한 평론가인 다치마나 다카시를 초청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작가인 이노세(猪瀬直樹)를 초청하였는데, 그는 “평화는 전쟁을 직시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생겨난다”는 말로 ‘전쟁을 직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구레시가 해사박물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방향제시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박물관 건설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런던의 전쟁박물관과 뉴욕의 해군항공우주박물관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아마토함의 승무원 가운데 ‘수측사’, 즉 수중에서 적의 잠수함을 발견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을 들었다. 이런 움직임은 아마토함에 대한 일종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그것을 지역의 상징으로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3회 심포지엄은 1998년 4월 7일, ‘아마토(大和)에서 아마토(やまと)로’라는 제목으로 열렸는데, 이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마쓰모토 레이지(松本零士)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 심포지움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청중이 많이 모였다.

29) 『심포지엄 자료집』, p. 23.

30) 같은 책, p. 53.

마쓰모토는 규슈의 구루메시 출신으로, 1974년 만화 「은하철도 999」와 「우주전함 아마토」를 그려 크게 흥행하였다. 「우주전함 아마토」는 전함 아마토가 침몰한 지 255년 후 방사능에 오염된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14만 8천 광년 떨어진 별에서 온 소년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줄거리로, 주인공은 아마토함에서 숨진 장병의 심정과 일맥상통하는 캐릭터라고 마쓰모토는 설명하였다.<sup>31)</sup> 흥미로운 것은 심포지엄의 날짜를 일부러 아마토함이 침몰한 날짜로 잡았다는 점이다. 마쓰모토의 만화는 아마토 담론을 ‘과거’에 그대로 묻어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미래의 기술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시도였을 뿐 아니라 아마토의 기억을 전전세대의 어두움에서 미래세대의 밝음으로 바꾸어 내는 장치였다. 그러나 평화적 교훈보다는 모험을 내세운 현실의 합리화일 수 있다.

제4회 심포지엄은 1999년 10월 7일에 열렸으며, ‘현대에 살아남은 아마토의 기술’이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조강연자는 『전함 아마토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마에마(前間孝則)로, 그는 전전의 해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기술이 일본의 전후산업발전에 어떻게 공헌했는가를 오랫동안 추적해 온 작가이다. 마에마는 구레공창의 기술과 생산관리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일한 숙련공들이 전후 어떻게 다른 작업장에서 자신의 기술력을 발휘했는가를 자세히 언급하였다.<sup>32)</sup> 그의 강연과 함께, 구체적으로 구레공창의 기술이 히로시마나 구레의 기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업을 대표하여 자동차, 철강, 조선의 세 분야에서 활동한 기술간부들을 패널로 초청하였다.

제5회 심포지엄은, 아사히TV가 1999년 10월 2일, 침몰한 아마토함의 잔해를 탐사한 내용을 방영하자, 이 해저탐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패널리스트로 초대하여 이루어졌다. 아사히TV는 1999년 8월, 11일간에 걸쳐 침몰한 아마토함의 해

31) 같은 책, 55~63쪽.

32) 같은 책, 71~79쪽.



저탐사를 진행하였고, 아마토함의 상징이었던 국화 문양의 장식을 찍었다. 이 심포지엄은 이 방송이 이루어진 약 1년 후인 2000년 10월 13일에 이루어졌고, 약 700명이 참여하여 아사히TV의 와타나베(渡邊宜嗣) 아나운서가 기조강연을 하였다. 그는 해저탐사 프로젝트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어 아마토함의 승무원으로부터 침몰 당시의 상황, 그리고 선박 건조기술자로부터 아마토함의 설계사상, 역사가로부터 아마토함의 침몰과 폭발상황 등을 들었다.

2002년은 구레에 시제가 실시된 지 100년째 되는 해였으므로, 심포지엄을 이 행사와 연결시켜 계획해야 한다거나, 5회 심포지엄 이후 너무 오랫동안 논의를 하지 않아서 심포지엄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급하게 6회 심포지엄이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7일, ‘소년병이 본 아마토’라는 제목으로 승무원으로부터 경험을 들었는데, 그는 아마토함의 승무원의 시체의 모습을 아마토함 갑판에 벚꽃이 흩어진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는 아직 벚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평화로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회 심포지엄은 구레 시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는데, 2002년 10월 11일, 1,300명이 참여한 심포지엄으로, 제2회 심포지엄에 초청하려다 실패했던 다치바나 다카시를 초청하여 ‘아마토의 건조와 침몰의 의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왜 일본 해군은 아마토함을 건조했는가, 절망적인 전쟁국면에서 왜 아마토함이 ‘특공출격’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아마토의 침몰로 인하여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다치바나는 당시 신문들이 실제상황과는 매우 다른 보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구적인 대본영 발표에 따라 일본인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망상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sup>33)</sup> 그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경고가 된다는 점, 비판적 언론의 감시역할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심포지엄은 아마토라는 소재로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끌어냈다. 다치바나의 주장은 이전의 논의들과는 약간 다른 역사적 감각

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토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시의 언론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심포지엄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심포지엄에서 행한 사회자의 모두발언이다. 여기에서 사회자는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의 전쟁을 전함으로 대표되는 선박시대와 항공기시대의 대결로 보고, 일본이 항공기시대에 대응하지 못하여 패배하였는데, 그 후 일본의 산업발달로 이를 만회했다고 보았다.<sup>34)</sup> 그는 일본의 자동차산업과 컴퓨터산업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현재 미국의 만회,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의 추격으로 일본경제가 다시 어려워졌다고 보았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아마토의 기억에서 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7회 심포지엄은 다치바나의 강연과 함께 이전에 기조발제자로 발표했던 마쓰모토, 마에마, 와타나베를 다시 패널리스트로 초청하여 아마토담론을 결산하는 기회였다. 각각의 심포지엄에 수백 명, 많게는 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제8회 심포지엄은 「해군전략과 아마토—아마토에서 배우는 역사의 교훈: 일본근현대사의 40년주기설에서 보는 경고」(2003. 11. 10), 제9회 심포지엄은 「구레해군공창의 기술적 과제와 성과—기술이나 역사를 생각하는 장으로서의 아마토뮤지엄에의 기대」로 주제를 정하였다(2004. 11. 27).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마토함을 소재로 하여 열린 심포지엄은 지역주민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나 만화가, 방송인들을 만나는 장이자 아마토함의 침몰로부터 살아남은 승무원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되었다.<sup>35)</sup> 이를 통해 아마토함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당시의 일본이 처

33) 『심포지엄 자료집』, 287쪽.

34) 『심포지엄 자료집』, 240쪽.

35)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심포지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박물관의 방향모색을 하는 것인 데 비해 2000년 이후는 확실히 아마토함 중심의 여론 모으기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야마토'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sup>36)</sup>

일시	주제	주발표자	핵심개념	시민참여자수
1995. 10. 21	연와가 있는 풍경	히야사카(早坂暁) 작가	구레 공장, 신생일본, 기술, 진혼	800
1997. 2. 14	승무원 체험담	이노세(猪瀬直樹) 작가		1,000
1998. 4. 7	'야마토'에서 야마토로	마쓰모토(松本零士) 만화가	우주전함, 미래, 모험	1,100
1999. 10. 7	기술의 계승	마에마(前間孝則) 기술사연구자	역사적 사실, 기술	700
2000. 10. 13	해저의 야마토와의 재회	와타나베(渡邊宜嗣) 방송인	해저탐사	700
2002. 2. 7	소년병이 본 야마토	야스키(八杉康夫) 승무원	죽음과 평화	350
2002. 10. 11	야마토의 건조와 침몰	다치바나 평론가	신문보도의 허구성, 감시	1,300
2003. 11. 10	해군전략과 야마토		역사의 교훈 40년 주기설	
2004. 11. 27	구레해군공창의 기술적 성과와 과제		기술과 역사	

자료: 『심포지엄 야마토에 묻는다』, 2003; 小笠原臣也, 『戦艦「大和」の博物館—大和ミュージアム 誕生の全記録』,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7.

한 상황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하여 야마토로 상징되는 역사적 유산을 구레의 지역적 자원으로 전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심포지엄이야말로 새로운 상징을 창출하는 정체성 정치의 장이었고, 이에 기초하여 야마토뮤지엄이 제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심포지엄의 조직자들은 야마토함의 생존자들의 증언에 기대어, 전쟁 경험의 핵심을 야마토함으로 상징화하고, 이 전쟁경험을 군사주의나 평화로 해석하기보다는 구레를 세계적인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한 공간적 집적 장소로 재현하

36) 야마토뮤지엄의 설립경위에 관해서는 이 박물관 설립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오가사와라 전 구레 시장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오가사와라는 1993년 구레 시장에 당선되어 3회 연임하면서 2005년까지 재임하였는데, 시장 재임기간 동안 이 뮤지엄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시장에서 퇴임한 후 뮤지엄 설립과정에 관한 책을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오가사와라 시장이 쓴 『전함 '야마토'의 박물관 — 야마토뮤지엄 탄생의 전기록』은 일본에서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 줄 뿐 아니라 이 박물관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분석할 만한 좋은 연구자료이다. 小笠原臣也, 『戦艦「大和」の博物館 — 大和ミュージアム 誕生の全記録』, 東京: 芙蓉書房出版, 2007. 이 책에는 『심포지엄 자료집』에 빠져 있는 8회와 9회 토론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는 데 주력하였다. '비극성'과 함께 '책임감'을 강조하는 윤리적 담론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마토 사상을 칭송할 수 없는 구조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소극적 정체성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경제대국을 건설한 일본인들의 기술중심 주의적 심성을 대변하는 적극적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심포지엄을 거쳐 야마토뮤지엄이 2005년 건립되었다. 이 박물관이 10년간의 공론장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에 기초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건립비는 건물관련 약 40억 엔, 전시관련 약 20억 엔, 옥외정비관련 약 5억여 엔으로 총 65억 엔이 소요되었다. 그 재원은 방위시설청에서 11억 엔, 현보조금 5억 엔, 복권 2억 엔, 지방교부세 13억 엔, 모금위원회 7억 엔, 시 부담금 27억 엔 등이었다. 또한 개관까지의 경비로 계획비 3억 엔, 자료수집비 5억 엔, 수장 전시시설 건설비 1억 엔 등 약 9억 엔이 소요되었다. 단일 항목으로는 아마토함의 1/10 축소모형을 만들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오가사와라 시장은 당시 언론들이 이 구상에 대해 상당히 반대 또는 비협조적이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주로 재정문제 때문이었다. 사회당과 공산당계는 야마토뮤지엄 건설계획에 대해 반대하였지만,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구사회당에서 분열된 사민당계 의원들은 예산집행에 찬성하였다. 사민당 출신의 오노 요시코 시의회 의원은 실제 건설이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물관 구상시 구레 시민사회단체는 특별한 참여가 없었으나 유족회, 해군관계자, 시민회의 등이 협조하였다. 언론의 태도는 적극적 협조라고 할 수 없었다. 오노 의원은 당시 언론의 주요 논조는 '돈도 없는데 왜 이런 걸 만드나'라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였다. 주고쿠(中国)신문의 경우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개관 전 전쟁찬미라는 비판이 많았고 '군사박물관'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개관 후 이런 비판은 수그러들었다.

### 3) 전시된 지역사

아마토뮤지엄은 크게 1층과 2층의 구레의 역사 전시실과 대형자료 전시실, 3층의 배를 만드는 기술 전시실과 미래 전시실, 옥외 전시로 구성되었다.<sup>37)</sup> 구레의 역사는 구레포의 풍경, 진수부의 개척, 해군공창의 설립, 전쟁경기와 해군공창, 생산과 관리의 합리화, 히로 해군공창과 제11해군항공창, ‘기술의 결정 전함 아마토’, ‘구레와 태평양전쟁’, 구레 해군공창에서 건조된 전함정 133척과 기타 특수병기, 평화산업항만도시로서의 재생, 구레의 현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지니는 것이 ‘기술의 결정 전함 아마토’, ‘구레와 태평양전쟁’이다.

전시 of 중심을 이루는 아마토함에 대해서 건조계획, 건조, 기술, 생애, 승무원, 현재 등 매우 세분된 항목에 따라 설명을 하고 축소모형을 만들어 전시하였다. ‘아마토의 현재’에는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잔해의 부품 사진을 찍어 전시함으로써 ‘진정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태평양전쟁에 관한 전시에서는 개전, 전선의 확대, 전국의 전환, 전선의 후퇴와 최종국면을 보여 주고, 구레에서 건조된 함정과 잠수함의 모형을 1/100의 크기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대형자료전시실에는 ‘영식(零式)함상전투기’, 특수잠항정 ‘가이류’(海龍), 어뢰와 특공병기 ‘가이텐’(回天), 함포 등이 전시되었으며, 옥외전시물로 전함 ‘무쓰’(陸奥)의 주포신과 스크류 등이 있다. 구레의 상징의 하나로 잠수함을 내세우려는 발상은 원래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일부가 구레에서 열리자, 구레의 상징으로 잠수함을 내세우려 했다. 이것이 아마토뮤지엄의 잠수함 전시로 실현된 셈이다. 아마토함 인양구상도 있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였다.

원래 뮤지엄을 위한 자료는 1990년부터 3년간 일본 전국 560개소를 방문하여 구하고 구레 해군공창에 근무했던 후쿠이(福井静夫)와 자료수집가인 신도(新

37) 呉市海事歴史科学館, 『大和ミュージアム常設展示図録』, ザメディアジョン, 2005.

藤源吾)로부터 다수의 자료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였다. 미국해사역사센터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가사와라는 전쟁에서 대부분 없어져서 전시물 수집이 어려웠으며, IHI회사의 협조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전시물 수집에는 해상자위대도 협력했는데, 가장 큰 협력은 ‘구 잠수함’을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 전시물의 상당수가 일반인들의 기증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다. 근래에는 뮤지엄 정문에 조각상「바다의 신」이 전시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조각품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기부를 요청하여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것을 기증받은 것이다. 이 조각은 강력한 남성이미지로 군함 포신과 추진 프로펠러가 함께 합성되어 남근형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sup>38)</sup>

전시 내용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바뀌는데, 2009년 전반기의 전시를 말한다면, 본 전시는 그대로이나 3층에 있던 ‘마쓰모토 레이지’관 대신 미래와 과학을 중심으로 후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아가와 히로유키 명예관장(소설가), 마쓰모토 레이지 명예관장(만화가), 마토카와 야스노리 명예관장(우주교육자)의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우주개발과 심해개발에 관한 특별전시도 하였다.

아마토뮤지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조선 기술을 중심으로 근대화의 시각에서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 내용의 시각적인 배치라는 측면에서는 아마토함 중심으로 한 배치가 이루어져 있고, 전전 구레의 역사에 있어서는 기술의 선도주자였다는 점(장인의 마을)과 제국 해군의 선도주자였다는 점(기지의 마을, 해군의 마을)이 혼합되어 있다. 전시 내용은 지다 교수의 공창 중심 기획과 오가사와라 전 시장의 아마토 중심 기획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구레 해군의 기술이 전후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

38) 박물관 실무자들은 이런 전시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해, 남성들이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존재들”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가부장제적 평화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다.

는 점,<sup>39)</sup> 그리고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기만 하면 그것이 곧 평화에의 회구와 연결된다고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sup>40)</sup>

아마토뮤지엄 전시 내용에 대해 뮤지엄 운영자들은 아스쿠니는 싸운 병사가 중심이지만 아마토뮤지엄은 구레시의 역사, 특히 당시 조선기술의 우수함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건립하였고, 우익들의 시각이나 주장과는 차이가 있으며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마토뮤지엄에 대한 평가는 설립 취지를 넘어서서, 전시내용, 설립효과 각각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전문가, 시청공무원 등의 주장 이외에, 일반주민, 평화운동가 각각의 평가를 감안하여야 한다.

#### 4) 뮤지엄 효과

아마토뮤지엄 개관의 효과는 무엇인가. 뮤지엄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구레 관광객의 증가에서 확인된다. 박물관 개설 이전인 2004년에는 구레의 연간 내방객이 약 150만 명이었는데, 2005년 개장 후 345만, 2006년에는 361만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345만을 기록하였다.

박물관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이 뮤지엄 입장객은 170만 명으로 일본 전국에서 1위, 2006년과 2007년에는 118만, 102만으로 5위를 기록했다. 박물관 개관 후 첫 1년은 구레 방문객의 약 절반이 이곳을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박

39) 이러한 시각은 구레뿐만 아니라 사세보에서도 발견된다. 사세보 해군사료관은 전전 일본 해군의 활약상을 보여 주면서 ‘후세에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높은 기술력을 집약했던 함정이나 항공기로 전력을 구성했던 해군은 이것들의 개발이나 생산, 군용으로 필요한 제 시설의 건설이나 유지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술의 축적, 생산설비나 사회자본을 후세에 남겨 주게 되어, 이 해군의 유산은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에 다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40) 구레의 관광 안내책자들은 해상보안자료관이나 해상자위대구레지방총감부청사, 해상자위대구레사료관(테쓰노쿠지라관), 나가사코공원(구해군요지), 아마토 뮤지엄, ‘역사가 보이는 언덕’(아마토의 고향) 등 전쟁·군사관련 유적이나 시설을 관광상품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레시가 제작한 [구레의 회랑]이라는 관광 안내책자의 첫 장을 전함 아마토의 모형과 아마토 뮤지엄이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구레의 관광산업에서 아마토 뮤지엄을 비롯한 전쟁유적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또한 10분의 1의 크기로 모형 제작된 아마토와 제로센 전투기, 인간여뢰인 카이텐, 특수잠항정 카이료우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실물이 알려주는 전쟁의 비참”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표 4〉 구레 방문 관광객 수

구분	관광객 수(천 명)	전년비(%)	비고
1999	1,264	85.6	
2000	1,337	105.8	
2001	1,350	101.0	
2002	1,880	39.3	구레 시제 100년
2003	1,450	77.1	
2004	1,550	106.9	
2005	3,450	222.6	야마토뮤지엄 개관
2006	3,610	104.6	
2007	3,460	95.8	

자료: 『구레시정개요』(2008: 187)

물관 개관 시 구레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방문하였다. 이는 박물관 개장이 계기가 되어 고향방문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해의 박물관 운영에서 수입이 5억 4천만 엔, 지출이 4억 3천만 엔으로 1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여 박물관 추진그룹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여러 군항도시 중에서 구레가 관광진흥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 오가사와라 전 시장은 구레에 해군병학교(일본에 3개의 해군학교가 있음)가 있어서 많은 해군 엘리트를 배출하였다는 점, 동양 제1의 해군기지라는 점, 그리고 구레에서 처음 군함을 제조하고, 가장 큰 전함을 만든 경험을 가진, 일본해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점을 들었다.<sup>41)</sup> 그는 이전에도 여러 도시에서 해군관련 전시와 박물관이 있었으나 해군에 관한 종합적인 전시는 없었으며, 구레의 야마토뮤지엄이 최초의 종합전시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레시의 총 관광객 수는 늘어났지만, 야마토뮤지엄의 연간 입장객 수는

41) 2009년 2월 2일 오가사와라 전 시장과의 대화.



2005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아마토의 관광사업화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히로시마나 미야지마에서 숙박하고, 구레에서는 당일관광으로 끝내는 경향이 많아서 체재형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마토뮤지엄의 실무자들에 따르면, 이 뮤지엄의 관람자들은 미야지마를 관광하고 관광버스로 아마토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며, 주로 성인관광객이 히로시마에서 버스로 오기도 한다.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은 수학여행단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고교 수학여행에서 히로시마의 시설은 국립이어서 입장료가 싸므로(50엔) 자주 가나, 아마토뮤지엄은 비싸서(500엔) 잘 오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sup>42)</sup> 그러나 아마토뮤지엄과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원폭기념관)을 세트로 한 관광코스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마토뮤지엄은 개관 첫해를 제외한 이후 3년간 적자 상태가 되었다. 관람객 14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해야 흑자를 이루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청에서 2008년 4월부터 민간위탁 경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아마토뮤지엄의 설립 프로젝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동기가 작용하긴 했지만, 오가사와라 시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보다는 사회교육이 더 중요한 동기였다. 아마토뮤지엄 개관 후의 관람객들에 대한 온라인 게시판 조사에 따르면, 약 50%는 아마토뮤지엄의 전시로부터 감동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30~40%는 무덤덤하고, 약 10%는 평화와 무관하다는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sup>43)</sup>

아마토뮤지엄 개관은 지역사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선 IHI조선소 공장건물 벽에는 2005년 아마토뮤지엄 개관과 함께 ‘아마토의 고향’이라는 대형 글씨가 쓰여졌다.<sup>44)</sup> 이는 이 조선소가 아마토함을 만든 곳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뮤지엄이라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2) 2009년 2월 2일 구레시 산업과 고마쓰(小松) 과장과의 면접결과에 따름.

43) 2009년 2월 2일 아마토뮤지엄 학예과 과장 쓰다(津田) 씨와의 면접결과에 따름.

44) 이 조선소는 원래 구레의 해군공창이었다.

대중문화를 통한 홍보의 일종이지만, 아마토뮤지엄의 개관과 함께 「남자들의 아마토」라는 영화가 제작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일본 영화제에서 촬영상 등을 수상했고,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였다. 마쓰모토 레이지는 아마토를 미래의 희망으로 창출한 반면, 영화 「남자들의 아마토」는 비극성을 모티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이 영화에 대한 토론회는 없었지만, 이 영화가 구레시민들뿐 아니라 외부관광객을 모으는 효과가 상당히 컸다.

또한 구레시 해사역사과학관은 아마토뮤지엄의 개관과 함께 『그림으로 보는 구레의 역사—일본의 근대화와 부흥을 떠받친 마을』을 만들어 구레의 소학교 고학년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무료배부하였다. 이 책은 본편에 17항목 34쪽과 자료편 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인 다카하시(高橋衛), 히로시마 국제대학 교수인 지다(千田武志), 구레시 해사역사과학관 관장인 도다카(戸高一成)가 공동으로 편집하였다. 이들은 모두 구레시 기획부에서 각각, 해사박물관 추진실 담당, 구레시 시사편찬실장, 구레시 기획부 참사보로 일을 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평화운동가인 히라가는 이 책이 아마토뮤지엄의 상설전시와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하였다. 그는 이 책에 대한 분석에서 지다가 주도한 『구레시 시제정 100주년 기념판—구레의 역사』가 비교적 압축할 만한 구성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비하여 이 『그림으로 보는 구레의 역사』는 이로부터 취사선택하여 일본의 제국주의를 부끄러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책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sup>45)</sup>

사실, 전쟁을 재현하면서 여기에서 평화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시담당자들은 아마토뮤지엄의 전시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전쟁이나 평화를 명시하지 않고 전쟁의 비참함, 비인간적 측면을 그대로 보여 줌

45) 平賀伸一, 「子どもたちに語り継ぐ 呉の歴史絵本について」, 呉市民平和講座 제4회, 2007. 3, 53쪽.

으로써 평화를 간접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전시의 내용, 야외전시 등은 매우 군사주의적인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각종 기념상품들도 지극히 전쟁옹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 설립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이 박물관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는 오가사와라 시장은 일본인들이 이 뮤지엄에 열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야마토를 통해서 일본이 야만국에서 문명국으로 전환된 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야마토는 서양보다 더 앞섰다는 것의 상징물이며, 둘째는 이야기의 비극성, 즉 전쟁 때문에 시대를 잘못 만나 ‘멸’당했다는 줄거리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야마토를 역사적 독해에서는 ‘찬미’로 읽으나 문학적 독해에서는 찬미가 아닌 비극적 텍스트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다 교수는 박물관의 전시가 자신의 원래의 구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현재의 전시는 기술보다는 군함 및 조선산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상상력이나 영화적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기본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다.<sup>46)</sup> 또한 “과거의 해군기술이 전후 부흥의 원천인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전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모은 것을 보여 주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특수강철기술 등 계속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추진하기에는 현 스태프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현 시장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였다.

46) 그는 “1층은 종합적인 해군공창을 보여 주고 2층에서 조선-군함 등을 보여 주고 싶었는데, 현재는 1층이 전부 해군 군함을 전시하고 있다”, “지금도 기술 전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여 주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들은 승진지향적이어서 전시방법의 개발이나 내용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썼으나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다 교수는 자료수집을 더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시장과 공무원들이 관광수입지향으로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아마토뮤지엄에 대한 구레의 전 시장과 현 시장의 입장의 차이도 있다. 문화 시설을 보는 시각에서 전자는 역사적인 접근과 사회교육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현 시장은 시의 재정을 중시하여, 수입 지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양자 모두 자민당계의 무소속 후보이나 현 시장은 고이즈미의 재정부율성 강조노선을 따르고 있어서 민영화 주장에 동조하여 민간 위탁 경영으로 나아갔다. 뮤지엄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현 시장이 자신이 만든 시설이 아니므로 애정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 4. 평화운동 진영의 비판

##### 1) 지역평화운동의 양상

전후 일본에서 평화운동은 혁신계 정당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1980년대부터 그 지형이 많이 변화되었다. 구레 피스링크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니시오카(西岡)에 따르면, 구레의 평화운동은 공산당계 평화운동조직인 평화위원회, 사회당계 평화운동조직인 평화운동센터, 전국조직인 피스포럼, 지역조직인 피스링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당계열의 조직인 평화운동센터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근래에는 많이 약화되었다.

히로시마를 비롯한 구레와 이와쿠니 지역에서 주민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만, 이 세 지역을 아우르는 단체가 ‘피스링크 히로시마·구레·이와쿠니’이다. 이 네트워크는 28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기지가 없는 평화로운 히로시마 만들기’를 내세우면서 지역 간 협력운동을 하고 있는 기지반대운동네트워크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세 도시에는 각각의 간사가 있다. 구레에서는 구레 교육노동자연구회, 구레 YWCA79여성들로부터, 토마호크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 구레 시민모임, 구레 피스사이클 등 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피스링크는 등록회원이 300명이지만, 활동적 성원은 20~30명이다. 피스링크는 평화운동센

터와 가끔 협력하나 공산당계 평화위원회와는 협력하지 않고 있다.<sup>47)</sup>

피스링크의 역사<sup>48)</sup>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구레의 평화운동을 약 30년간 이끌어 온 유아사 이치로이다. 그는 1970년대 후반에 지역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1982년 나카소네정권 등장 이후 안보와 기지 문제에 관련된 주민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을 회고하였다.<sup>49)</sup> 구레에서의 시민평화운동은 1984년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누구도 이런 군사적 활동과 설비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sup>50)</sup> 1984년 12월부터 기지감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5년 2~3월 팀스피리트에 수반된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민평화운동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스링크의 활동원칙을 첫째 사실에 기초하여 한발 일찍 문제를 제기하고, 둘째 신중하게 생각하되, 그 의지를 가급적 빨리 행동으로 보일 것”으로 삼았다고 회고하였다.<sup>51)</sup> 첫째 원칙은 독자적 감시활동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지속적인 감시, 조사, 문서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둘째 원칙은 평화선단, 가두선전, 자치체나 자위대에 대한 의견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유아사는 구레의 평화운동의 전기를 1986년 핵 토마호크를 탑재할 가능성이 큰 세 척의 함선이 사세보와 요코스카, 구레에 동시에 입항한 사건이라고 보았다. 구레에 입항한 메릴호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유아사는 이에 대

47) 공산당 주도의 평화위원회와 피스링크가 별다른 연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평화운동가들 사이에서 공산당과 평화위원회를 폭력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48) 피스링크의 역사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平岡典道, 「ピースリンク広島-呉-岩国の活動に關わつて」, 吳市民平和講座 제1회, 2006. 7; 湯淺一郎, 「基地の街-呉に暮らして」, 吳市民平和講座 제2회, 2006. 9; 湯淺一郎, 「ピースリンクの18年吳をふりかえる」, 吳市民平和講座 제6회, 2007. 6; 久野成章, 「ピースリンクの18年を振り返って」, 吳市民平和講座 제6회, 2007. 6.

49) 湯淺一郎, 「基地の街-呉に暮らして」, 吳市民平和講座 제2회, 2006. 9.

50) 2009년에 이르러 1960년대 사토정권하에서 유사시 군사시설이나 핵무기 사용에 관한 미일간 비밀협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51) 湯淺一郎, 「ピースリンクの18年吳をふりかえる」, 25쪽.

한 체계적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히로시마의 문제를 구레나 이와쿠니와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연대조직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sup>52)</sup>

1987~1988년 간에 한미 합동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항하여 일본의 시민들이 피스 스피리트 행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의 상징인 원폭 돔으로부터 반경 20~30km 내에 각종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989년 2월, 기지없는 히로시마를 목표로 한 지역연대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항상적인 연락조직으로 22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실증성, 기동성, 동시행동, 지역과 세계의 연계 등을 모토로 삼았다.

이 무렵 구레의 YWCA도 전쟁책임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평화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평화운동의 흐름은 1989년 히로시마와 이와쿠니를 잇는 지역연대조직으로 발전하여 '피스링크'가 되었다. 피스링크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활동가 구노는 1989년의 피스링크의 결성을 구레의 주체, 즉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 좌익이 전세계적으로 와해되는 가운데, 새로운 주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이해하며, 이는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지구적인 시각이나 사상에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보았다.<sup>53)</sup>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의 해체에 따라 미소 간 세계적 냉전이 종결되었으나, 일본에서의 미군의 활동은 점차 활발해져서, 히로시마에서도 1991년 1월에 발생한 걸프전쟁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파견을 검토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형성되었다. 소해(掃海)함대로부터 시작된 자위대의 해외파견,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투 파병, 아쓰기(厚木) 공모함재기 이주 등등의 군사활동이 전개되자, 이 지역의 평화운동가들은 이런 일본의 군사기지정책이 자치체나 시민의

52) 湯浅一郎, 「ピースリンクの18年史をふりかえる」, 65쪽.

53) 久野成章, 「ピースリンクの18年を振り返って」, 70쪽.

의향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sup>54)</sup>

사민당 출신의 시의원과 함께 지역의 평화를 강조하는 시의원이 공산당 출신의 오후다 의원이다.<sup>55)</sup> 그는 1990년 7월 19일 ‘비핵의 구레항을 추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이 해에 시의회에 진출했는데, 그때부터 평화도시 히로시마의 문제를 구레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히로시마와 구레 간의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아마토뮤지엄과 야스쿠니의 전쟁기념관인 유취관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유취관은 정면에서 전쟁을 찬미하는 입장이지만 아마토뮤지엄은 간접적으로 찬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마토뮤지엄이 관광산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다.<sup>56)</sup> 그는 전쟁기념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재는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눈앞의 기지를 봐야 한다”는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미군기지까지 포함해 히로시마 주변의 기지들에 관한 지도를 작성한 것은 1995년 무렵 유아사 이치로가 최초였다.<sup>57)</sup> 그는 현재 히로시마의 평화운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것이 정례화된 운동의 틀에 묶여 있고, 다분히 ‘아직도 사회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일종의 존재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sup>58)</sup> 피스링크는 소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 히로시마, 구레, 이와쿠니의 지역 문제에 대해 연대 활동을 하는데, 동시집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지원 집회를 주로 한다.

54) 平岡典道, 「ピースリンクの活動に関する」, 吳市民平和講座 제1회, 2006. 7.

55) 그와의 인터뷰는 2009년 8월 1일에 이루어졌다.

56) 그는 1995년 평화운동가들이 아마토뮤지엄 구상에 대항하여 구상한 전쟁기획전에 대해서는 제안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를 주도한 평화운동가들과 공산당 간의 거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57) 2009년 2월 8일, 피스링크 소속 오쓰키와의 대화.

58) 2009년 2월 8일, 피스링크 소속 유아사와의 대화. 이와쿠니 기지개방행사에 매년 2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 중 약 50%가 히로시마시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미군의 세계적 재편계획에 따라 이와쿠니기지의 강화론이 대두하자 피스링크는 최종적 판단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자치체의 몫이라는 것을 내세워 주민투표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런 운동방향이 관철되어 2006년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런 문제의식을 구레에도 적용하여 ‘자위대와의 공존 공영노선’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인하는 노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의 평화운동가들은 구레시가 구 군항도시전환법을 단지 해군용지를 민간전용으로 한다는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 법률의 제1조에 규정된 ‘평화일본의 실현을 위한 평화산업도시’라는 이념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이 법률의 이념을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5년간 전시된 전쟁참상에 서 교훈을 얻을 것과 연결시켜 해석하며, 현재의 구레의 모습이 이런 군전법의 이념과 모순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야마토뮤지엄에 대한 비판의 기본 시각을 여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본다.<sup>59)</sup>

## 2) 피스링크의 야마토뮤지엄 비판

전쟁과 평화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평화를 보여 주는 것은 의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남아 있는 기록, 특히 전쟁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들은 승리자의 기록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은 평화보다는 승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힘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미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쟁관련 자료는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고, 이 또한 평화를 위한 기술보다는 승리를 위한 기술에 치우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평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셋째, 평화는 많은 경우 직접적 가시성보다는 해석과 성찰의 결과이며, 아주 드물게 전쟁의 참상

59) 湯浅一郎, 「ピースリンクの18年闘をふりかえる」, 69쪽.



과 비극을 보여 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적다. 이 때문에 평화를 보여 주는 자료나 기록들은 많은 경우 생존자의 사후적인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이 증언은 직접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 주지는 않는다. 넷째, 평화의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군대나 기계, 기술 중심의 역사서술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상황을 보여 주고, 남은 이들을 말하게 하는 전재(戰災) 중심의 기획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마토뮤지엄 추진그룹이 주로 과거 전쟁의 기억을 아마토함에 배치되었다가 살아남은 병사들의 회고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에 맞서는 주민평화운동 그룹은 주로 공습에서 살아남은 주민의 참혹했던 피해의 회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레에서 1995년 시도된 전재기획전시회에서 전쟁경험에 대한 성찰의 진전을 발견할 수 있다. 해사박물관 구상의 맥락에서 1995년 제1회 심포지엄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응하려는 구상이 '전재기념관' 건립안이었다. 이 대안은 구레에서 전쟁기억을 평화와 연결시켜 상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는 구레가 공습피해가 큰 다섯번째 도시여서 이를 중심주제로 하여 교원단체에서 전시하고,<sup>60)</sup> 리쓰메이칸대학의 평화센터와 오사카 인권기념관을 모델로 하여 시에 전재박물관 설립을 요구하였다. 전재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들은 전재와 희생을 강조하고, 특히 소이탄에 의한 피해를 강조한다. 1995년은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무라야마가 총리에 재임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사회당이나 공산당 관계자가 피스링크 성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은 구레시가 해사박물관을 만든다면 '전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기획 내부에서도 전쟁가해의 문제는

60) 이와 관련된 내용은 吳市, 『吳・戦災と復興: 旧軍港市轉換法から平和産業港灣都市へ』, 1997.

일본'국가'라는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죽은 이들(일부 중국인 포함)과 남은 이들도 일본인으로 제한된다. 즉, 국가/군대라는 가해자와 국민이라는 피해자와의 대립구도가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전전과 전후에 걸쳐 군사도시·기지도시와의 공존공영을 선택해 온 '구레시민'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아마토뮤지엄에 대한 피스링크의 공식입장은 2005년 5월 11일 구레시장에 게 보내는 '요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이 군사적 색채가 강한 '구레시해사역사과학박물관'의 전시내용이나 설치목적을 재고"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전시품이 대량살인을 위한 장비들이라는 점, 건설재원을 방위청이나 방위시설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전시내용이 국제사회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적자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었다.

이후 피스링크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간 구레 YWCA에서 총 6회의 시민평화강좌를 열었다. 이 강좌는 전후 60년의 시점에서 미군재편과 함께 일본의 '헌법 9조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획된 것이다. 특히 이와쿠니에서 이뤄진 주민투표의 경험을 보면서, "시민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의사표시를 할 때, 정치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확신을 가진 시민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강좌를 기획하였다. 시민강좌 안내문의 첫머리에는 구레를 가리켜, "1889년 구레 진수부로 시작한 이래 해군의 도시, 침략전쟁의 거점,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 파병의 도시로 역사에 각인되었다"고 규정하였다. 현재에도 구레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해외파견의 거점도시로 기능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공습을 경험하고, 전쟁 직후인 1950년, 구(舊)해군시설을 평화산업으로 전환하는 구군항시 전환법을 주민투표로 성립시킨 도시"라는 점을 상기하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역사에 각인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평화강좌는 유명인사의 초청강연 형식보다는 지역 내 활동가와 주민들 간의 학습강좌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주로 구레의 기지를 둘러싼 지역사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따라서 강좌의 주제도 지역에서의 전쟁체험과 피폭체험의 계승, ‘나와 평화운동’, 헌법 9조를 지키는 문제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회는 헌법 9조의 위기에서 구레 공습-무차별폭격의 실태, 2회는 히로시마-구레-이와쿠니의 기지군, 제3회는 아마토뮤지엄, 제4회는 구레의 근현대사 100년, 제5회는 유사법체제의 국민보호계획의 문제점, 제6회는 ‘히로시마에서 보는 파병국가에의 길’ 등이었다. 이 6회의 강좌는 구레지역 평화운동가들의 생각이나 활동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특히 제3회의 아마토뮤지엄에 관한 토론은 구레에서 이 박물관을 바라보는 대안적 시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아마토뮤지엄에 관한 시민평화강좌에서도 ‘아마토를 말하는 모임’에서처럼, 태평양전쟁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물들의 회고담이 이야기되었다. 1943년 가고시마항공대에 입대한 마쓰토(松藤秀利)는 1945년 특공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가 패전을 맞았는데, 이후에는 생명의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입문해 사목활동을 했다. 그는 아마토뮤지엄을 “아마토 찬가로 시종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up>61)</sup>

아마토뮤지엄의 시민생활효과에 관하여 피스링크는 좋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다. 관람객들이 박물관만 보고 가므로, 경제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오가사와라 전 시장의 견해와 다른 것이다. 유아사는 아마토뮤지엄은 “과학기술의 전쟁체제로의 전체적 동원을 문제삼지 않고 그것을 건조한 개별기술을 과시하는 전시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본근대의 형성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전쟁동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보았

61) 松藤秀利, 「大和ミュージアムについて」, 呉市民平和講座 제3회, 2006. 12, 42쪽.

다.<sup>62)</sup> 피스링크의 니시오카는 유취관과 아마토뮤지엄이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은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오노 시의원은 는 구레시의회에서 아마토뮤지엄 설립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군전법’, ‘평화산업항만도시’, ‘자위대와의 공존공생’이라는 세 개의 핵심어를 둘러싸고 논쟁을 전개하였다고 말했다.<sup>63)</sup> 시민당이나 공산당 출신의 의원들은 아마토뮤지엄이 과연 군전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가를 시장에게 질의하였다. 이들은 군전법이 헌법에 의한 항구평화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카무로(中室茂)라는 중학교 사회과 교원은 제3회 구레 시민평화강좌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논의하고 있다.<sup>64)</sup> 그는 피스링크에 참여한 일교조 소속의 히로시마 지부, 즉 히로시마교조 소속으로,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사회교육에서 구레는 ‘대구레시’ 정체성과 ‘신구레시’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구레시 정체성은 세계 제일의 아마토함을 만든 군항이라는 자부심을 기초로 하고 있고, 신구레시 정체성은 ‘군전법에 기초한 평화산업도시’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이런 정체성이 1928년에 제정된 구레 시가와 1952년에 제정된 구레 시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2006년 여름의 『아사히신문』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비판하였다. 첫째, 그는 ‘철의 고래’(잠수함)를 아마토 뮤지엄 뜰에 전시하기 위하여 이송하는 기사로부터, 이 잠수함의 전시는 방위청의 협조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박물관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둘째, 「피폭 피아노 평화를 울리다—구레 아마토뮤지엄」이라는 기사가 있

62) 湯淺一郎, 「大和ミュージアムから考える」, 軍縮地球市民, 4, 2006.

63) 大野よし子, 「海事歴史科学館と平和」, 2006. 12, 27쪽.

64) 中實茂, 「大和ミュージアムをめぐる動きと'学校'教育」, 呉市民平和講座 제3회, 2006.12.

는데, 이는 아마토뮤지엄에서 피폭 피아노로 연주회를 연다는 것으로, 그는 피폭 피아노를 사용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물었다. 셋째, 해군묘지에서 합동추도식이 열린다는 기사로 그는 '평화는 무기로 지킨다는 사상'을 문제삼았다. 그는 2005년 9월에 아마토뮤지엄 관장 도다카나 전 방위청장관 히라마(平間洋一)가 언론에서 행한 좌담회 내용이나 학생들의 평화학습교육을 위해 이 박물관으로의 수학여행을 장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렇다면 히로시마의 평화운동가들은 아마토뮤지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컨대, 히로시마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아사히 모토후미 소장은 아마토뮤지엄이 전쟁반대의 사상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2004년부터 아마토뮤지엄 계획에 반대하는 칼럼을 썼다.<sup>65)</sup> 그렇지만, 일반시민은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따라서 반대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sup>66)</sup> 그에 따르면, 히로시마 평화운동가들은 아마토뮤지엄을 답사하지 않으며, 히로시마시가 원폭박물관과 아마토뮤지엄을 세트로 만들려는 계획을 2008년 초에 수립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가 커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 5. 맺음말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를 성립시킨 것은 헌법 9조의 규범력, 미일안보동맹의 힘, 대일본제국의 계승원리 등 3개의 원리였다.<sup>67)</sup> 이 세 개의 원리는 서로 배타적이면

65) 2009년 2월 3일 히로시마평화연구소에서의 대화.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는 히로시마에서 평화연구를 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아사히 소장은 외무성 중공과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교수들의 모두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66) 히로시마 평화운동의 기반은 피폭경험이지만, 조직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현재진행형인 기지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다.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공산당계와 사회당계로 분열되어 있다. 히로시마에는 반기지운동이 없는 반면, 이와쿠니 기지반대운동에는 반자민당 민주당 지지자도 참여한다.

67) 久野成章, 『ピースリンクの18年を振り返って』, 72쪽.

서 얹혀 있는 모순적 존재이다. 일방적으로 하나의 원리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원리가 주도적인가는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

헌법9조의 규범력은 전쟁체험에 기초한 전후민주주의 교육에 있고, 여기에 서 평화운동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 전후 히로시마의 '노 모어(No more) 히로시마, 나가사키', '노 모어(No more) 피폭자'라는 호소도 전쟁체험에 기초한다. '군도'(軍都) 히로시마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피스링크의 저항의지의 기반이다. 이에 반하여 미일동맹의 힘은 '핵함선의 입항반대, 핵공격기 이륙반대'라는 피스링크의 기본 슬로건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이다. 피스링크는 핵 토마호크의 탑재가능성을 가진 메릴호의 구레 입항반대, 아키쓰키(秋月) 탄약창의 각종 탄약고나 탄약보관 및 수송반대, 미군재편과 이와쿠니기지 강화 반대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활동들이 헌법9조와 결합되어 있는 미일동맹을 겨냥하고 있다. '대일본제국 계승원리'는 '야마토뮤지엄' 건설을 가능하도록 만든 원천이다. '패전 이전의 일본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역대 보수정권의 끈질긴 지속성'을 만들어 냈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기층사회에서 전전의 뿌리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구레의 해군을 계승한 에다섬이나 해상자위대, 여기로부터 이루어지는 해외파병은 지역단위에서의 전전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지표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정부의 강한 요청과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일본정부의 편승'이라기보다는 일본정부의 독자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평화운동가들을 움직이는 원천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자민당정권으로부터 민주당정권으로의 교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가 '제도'의 영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본정부의 독자적 동기론을 검증하는 새로운 시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지방도시 구레에서 일본의 우경화·군사화가 중앙에서의 정치적 움직임에만 좌우되지 않으며 지방에서 일정한 물적

기반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전 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각 지역에서는 전쟁의 직접체험세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은 쉽게 망각되지 않으며 그것은 우경화의 자원이 되기도 하면서 평화운동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기념산업은 지역사회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식·무의식적 기억에 의존하지만, 사회교육적 동기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기가 결합하여 역사적 경험의 자원화를 향한 열망을 자극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조건 속에서 각 지역사회는 자신만이 지닌 역사적 자원들을 강조하므로, 전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이를 오랫동안 억제해 온 지역에 뿌리내린 평화운동은 점차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레라는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힘이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가? 1993년부터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오노 요시코에 따르면, 혁신계가 활발한 활동을 할 때, 구레의 시의회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에서 각각 7명, 2명 정도의 시의회 의원을 당선시켰으나 최근에는 사민당 2명, 공산당의 원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민당 의원은 2명 모두 여성이며,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개인적인 지지기반으로 당선되었다. 오노 의원은 어린이 지원사업, 환경이나 평화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회 회파 중에서 시민포럼은 주로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이며 기업 출신자들이 많고, 공산당은 변호사나 민주상공회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노동조직 중에서 '시 직원 노동조합'은 민주당을 지지하며, IHI와 닛신제강은 시민포럼을 지지하고 있다.<sup>68)</sup>

2009년, 이른바 55년체제라고 불리는 자민당 지배체제가 민주당 주도로 바

68) 2009년 2월 5일, 오노 요시코 의원과의 대화.

뀐 상황에서 일본의 풀뿌리 평화주의는 한국이나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만 소생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구레는 한국의 진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의회 회파 중에서 동지회의 성원들이 진해와의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sup>69)</sup> 유감스럽게도 진해 쪽 파트너는 동아시아의 평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69) 2009년 3월 진해시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와 자본가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생산의 주체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급진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즉, 미군정이 주도한 노동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산업보국회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기억은 전후 일본에서 진행된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합리화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 임성모

투고일자 : 2009년 12월 14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9일

전후 일본 사회의 만주 기억은 식민지 기억의 전형에 해당한다. 만주 기억은 점령과 냉전의 틀 아래 1960년대 전반까지 ‘침략’과 ‘식민’의 주류 서사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러나 만주 체험자 그룹을 중심으로 배양되고 있던 이 기억은 고도경제성장과 중일 국교 재개를 계기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만주 ‘귀환자’들의 각종 수기, 소설, 사진, TV 다큐멘터리 등 활자·영상매체들,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활성화된 만주 관광 등이 기억을 유통·확산시키는 주요 회로로서 기능했다. 전후 일본의 ‘기억 정치’는 식민지 지배의 가해의식을 봉인하고 ‘고난’의 피해의식을 부각시키면서 ‘반전평화’와 내셔널리즘을 결합한 ‘일국평화주의’를 구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귀환’ 서사로 상징되는 만주 기억은 ‘제국’과 ‘근대화’의 ‘향수’를 부추기는 새로운 주류 서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월경적’인 식민지 기억은 동아시아 냉전의 항배에 의해 서 재규정될 것이다.

#### 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 구레의 ‘해사 역사과학관’을 중심으로 | 정근식

투고일자 : 2009년 12월 4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히로시마 남부의 소도시 구레에서는 2005년 ‘해사 역사과학관’이라는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별칭으로 ‘아마토뮤지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태평양전쟁에서 활동했던 군함 아마토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기억을 되살려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지역정치의 산물이다. 이 박물관의 설립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풀뿌리 보수주의의 전개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태평양전쟁에서의 피폭, 전재(戰災)라는 역사적 경험을 내세우면서 평화를 고수하려는 흐름간의 경합과 갈등,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히로시마의 평화’를 재고하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히로시마만(灣)

을' 바라보는 시각을 채택하여, 구레의 전쟁기억의 재현의 정치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박물관 건립프로젝트는 패전 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전쟁의 직접체험 세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전쟁에 대한 기념산업은 지역사회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식·무의식적 기억에 의존하지만, 사회교육적 동기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기가 결합하여 역사적 경험의 자원화를 향한 열망을 자극한다. 구레의 경우,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상으로 나타났으며, 평화주의나 기술중심주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군사주의에 가까운 구상이 시장의 리더십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 과정을 좀더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은 쉽게 망각되지 않으며 그것은 우경화의 자원이 되기도 하며 평화운동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조건 속에서 각 지역사회는 자신만이 지닌 역사적 자원들을 강조하므로, 전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의 풀뿌리 평화운동의 근거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전함 야마토의 유령들 : 전함,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기억의 형성 | 이헬렌**

투고일자 : 2009년 12월 10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본 논문은 전함 야마토를 기념하는 장소로서 야마토 박물관의 급작스러운 인기와 현재 일본의 대중 문화에서 야마토의 재현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함 야마토가 전쟁과 파괴력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마토가 수용되고 이해되는 방식은 하나의 논리나 원칙 하에 설명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혹자가 해군 기술에 있어 일본이 이룬 최고의 성과물, 즉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야마토를 떠받치는 반면, 어떤 이는 야마토를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바라본다.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야마토는 일본이 스스로의 후진성을 인지하고 극복해 냈음을 증명하는 궁극의 자기증명이라 평가한다. 이 모든 인식들은 일본의 전쟁사에서 야마토가 자리매김되는 군국주의 체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료는 고노 후미요의 최근 만화,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였다. 필자의 주된 질문은, 현대 일본에서 패배한 자들의 대중 기억의 형성에 있었다. 박물관과 대중문화를 통해 출현하는 전함 야마토는, 전후 일본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적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데 있어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우주전함 야마토의 예와 같은 이전의 예에서 보여지듯, 전함 야마토에 대한 일본의 매료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평화 박물관 건설의 대유행과 야마토의 확고